

제 목	우리는, 아이생명지킴이
<p>“친구들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로 아침을 열어주는 아이들이 있어 무더운 여름이지만 어린이집은 매일매일 생명의 기운이 넘쳐난다.</p> <p>한여름 동안 우리 어린이집 옥상 텃밭에는 신나는 물놀이장이 열린다. 오늘은 일곱살 하늘반 친구들의 물놀이 날이다. 아이들은 시원한 물놀이도 하고 텃밭에 직접 기른 오이, 호박, 상추에 물뿌리개로 물도 주고, 주렁주렁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직접 따서 씻어 먹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p> <p>한 시간 남짓 신나는 물놀이를 마치고 한 명씩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교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되었다. 담임선생님은 3층 하늘반 교실에서 그리고 보조 선생님은 옥상에서 남은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있던 그때!</p> <p>교실에서 아이들을 살피던 선생님은 ○○이의 얼굴색이 좋지 않음을 느꼈다. 눈동자에 초점이 사라지고 몸은 힘이 없이 축 늘어진다. 큰일이다. 응급상황이다. 선생님은 급히 1층에 있는 원장과 주임교사를 부른다. ○○이가 옥상에서 먹던 방울토마토를 꼭꼭 씹지 않고 그냥 삼키려다 목에 걸린 것이다.</p> <p>3층으로 한달음에 뛰어 올라간 나는 바로 곁에 있는 주임교사에게 119신고를 지시하고, ○○의 부모님에게도 응급상황임을 전달하도록 하고 아이의 등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감싸 품에 안고 하임리히법을 시작했다. 교실에 친구들이 모두 이 상황을 함께 지켜보며 걱정스러워하고 있었기에 보조 선생님에게 유아들이 놀라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말기고 원장, 담임, 주임, 선임 교사까지 총동원된 그야말로 실제 상황이었다.</p> <p>원장과 선임 교사가 번갈아 가며 하임리히법을 반복했지만 아이 눈에 초점은 돌아오지 않고 또래에 비해 왜소한 편인 아이의 몸은 갈수록 축 처졌다. 목 안에 걸려있는 반쪽짜리 방울토마토는 조금씩 보이며 금방 나올 것만 같은데 아이가 스스로 기침하거나 몸에 힘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마음은 더욱 다급해지고 계속 아이를 품에 안고 불끈 감싼 두 주먹으로 배꼽과 명치 사이를 빠르게 밀쳐 끌어올리며 하임리히법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좀처럼 밖으로 토마토가 나오지 않아 애가 났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구급차가 도착하기 직전 다행히 목에 걸려있던 방울토마토가 툭 뱉어져 나오고 우리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말로 다할 수 없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p> <p>오랜 시간 보육현장에 있었지만, 이런 응급상황은 정말 처음이었다.</p>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을 되찾은 모습을 보며 “정말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를 마음으로 얼마나 외쳤는지 모른다.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 가정과 소통한 후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부모님이 바로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병원에서 대기하며, 또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홀로 아이를 보호해야 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아이의 컨디션이 서서히 회복되고 의사선생님의 “후유증 없이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에 기뻐다. 놀랐던 마음을 진정시키며 어린이집으로 잘 돌아왔다. 걱정과 긴장 속에 있었던 선생님들도 어린이집으로 들어서는 아이와 나를 보고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학기 초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서 선생님들과 직접 실습하며 배웠던 하임리히법을 응급상황에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다니, 교육용 조끼를 입고 실제 상황처럼 짝을 이루어 실습해 보았던 것이 몸으로 선명하게 기억되어,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동료교사들과 한마음이 되어 응급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다. 보육교직원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배웠던 응급처치 교육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응급상황을 지켜보며 많이 놀랐을 하늬반 아이들과 또 각 가정으로 일일이 연락하여 기도 막힘 사고예방을 위해 함께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께서는 하나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응급처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한마음으로 다독여 주셨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돌보고 살리는 일상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귀하고 어린 생명력이 숨 쉬는 곳,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어린이집에서 모든 교직원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으며 항상 안전사고에 민감하고, 응급처치 방법을 반복 또 반복하며 몸에 익히게 되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실습으로 몸에 익히고 배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잘 대처하여 아이가 웃음을 되찾게 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